"종교다원주의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제도와 법률 제정 적극 저지"

'(사)한국교회보수연합' 창립… 영등포성전에서 창립 감사예배 드려

사단법인 한국교회보수연합(한보연, KCCA)은 지난 4월 27일(목) 오후 본교회 영등포성전에서 150여 명의 교파를 초월한 교계 지도자와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및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한보연은 종교다원주의와 관련된 세계교회협의회(WCC)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의 활동을 배격하고 철저하게 성경대로의 신앙을 추구하면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 헌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이날 예배는 신상철 목사님(오산시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사회로 한요한 목사님(개혁회복 총회장)의 기도, 백근기 목사님(돌계단선교회장)의 성경봉독, 윤항기 목사님(국가원로의회 공동의장)의 특별찬양, 초대 대표회장 박만수 목사님(수색성은장로교회)의 설교 순서로 진행되었다.

박 목사님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커진다. 교회가 바로 서면 학교가 변화되고 사회가 개혁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될 것이다"라고 역설하며 회원 단체와 기관 및 목회자들의 협력과 헌신을 부탁하였다.

고문으로 추대되신 조용목 목사님은 축사에서 "하나님의 성호에 합당하게 행한 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한 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행한 일만이 참된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된다"고 강조하시고,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에베소교회처럼 처음사랑 처음행위를 버리는 일이 결코 없고 여러분이 지금 가진 이 단체의 성격과 강령에 요지부동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며 한보연의 창립을 축하하시고 임회원들을 격려해 주셨다.

이어서 김원식 목사님(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대표회장)의 축사와 강헌식 목사님(기하성광화문 총회장)·정사무엘 목사님(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총장)의 격려사, 이은재 목사님(한국교회방송 대표)의 경과보고, 김영완 목사님(예장웨민 총회장)의 창립취지문 낭독 순서가 이어졌다.

계속해서 윤덕남 목사님(기독교시민연대 대표), 허병주 목사님(정치종교윤리실천연합 대표), 김영신 목사님(한복협 대표회장), 김영달 목사님(행복이넘치는교회)이 주제별 특별기도를 하였고 박중선 목사님(합동진리 총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감사충만 사명감 충만 … '평신도성경대학원' 제6회 졸업예배

조 목사님 "배운 것이 체화(體化)되고 말씀따라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야" 강조

평신도성경대학원 제6회 졸업예배가 5월 3일(수) 오후 아가페성전에서 졸업생과 재학생 및 성도들이 참석하여 드려졌다.

말씀의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며 대학원에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 온 졸업생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도 배움에 진력하도록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우리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앞장서 헌신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평신도교육국 심연숙 국장의 사회로 대학원 한실희 교수의 기도, 대학원 1학년생들의 특송, 당회장 조 목사님의 설교, 졸업예식 순서로 예배가 드려졌다.

조용목 목사님은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시고 졸업생들을 축복해 주셨다.

조 목사님은 북한군의 남침에 의한 6·25전쟁으로 국토가 잿더미가 된 우리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 세계 6대 군사대국이 되고 문화 등 다방면에서 세계가 경탄하는 국력의 신장을 이루게 된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하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신앙이다. 전쟁의 폐허 위에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셨다.

이어서 목사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면 마귀가 훼방을 한다. 사이비 이단이 발호하고 교역자나 신학자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혼잡케 하여 마치 자가면역질환처럼 기독교를 파괴한다. 기독교 신앙의 근원인 성경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지식을 가지되 성경대로라는 원칙을 떠나서는 안 된다. 배운 지식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목사님은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배우는 것이 가장 수준 높은 교육이다. 배운 것이 체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배운바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더 많이 배운 만큼 신앙생활이 진보하고 주께 유용하게 쓰임 받으며 사랑과 헌신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셨다.

이날 졸업예배는 대학원 약력보고, 졸업증서와 상장 수여, 졸업생 대표의 '감사의 글' 낭독 순서가 있은 후 조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주요선교업무
- IMCR (International Ministries & Church Revival Conference: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회의) 세미나 개최 및 회보 발행
- 문서, 방송선교 지원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 세계선교연합회 소식지 발간
- 각 지역 선교센터 설립 운영 지원
-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교회 해외 선교행사시 동참
- 당회장 목사님의 외국어 설교집 발간
- 본교회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홍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

◆각 나라별 선교회

구 분	중국선교회	인도선교회	말레이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페루선교회	미얀마선교회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담당성전	안양,산본,포일,부곡	수원,영통,진위,전원,동탄,안중,평택,용인,남양,을전,전주효자	안산,시화,시흥,인천,부천,부평,영종도	과천,판교,강남,구리,광주	광명,영등포,원주,천안	일산, 김포, 장유,전주평화	수원,양주,서산,당진	수원,대구,세종
연락처	T:031-448-1793 T:031-443-3731~2 (구내 112) C.P:010-4564-7539	C.P:010-5358-1233	T:031-487-1793 T:031-487-1397 C.P:010-5018-3686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5200	T:02-894-3731 C.P:010-8277-2944	T:031-906-3731 C.P:010-5335-7050	C.P:010-5358-1233	C.P:010-5358-1233
성가단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콰이어							

은혜와 진리소식

제1827호

2023년 5월 21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이 노년에 당회장 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며 주님과 함께 하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 박찬용 -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시편 52:8~9)

제 나이 어느덧 80을 훌쩍 넘겼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인 나이 30대 중반의 일입니다. 우리 집 본채 아래 가건물로 된 별채에 젊은 전도사님 부부가 세 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독실한 믿음에서 우러난 행동이었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제 생각에는 자주 일반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괴짜 부부였습니다.

밤새도록 폭우가 내리던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어떤 피해가 생길까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밖으로 나와 집안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별채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부부는 교회 새벽기도회에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방 안 천장에서 물이 뚝 뚝 떨어지고 있었고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란 그릇이 온통 방안 여기저기 물이 떨어지는 곳마다 놓여 있었습니다. 안방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 데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 데도 그 부부는 교회로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집에 돌아와서 집주인인 나에게 어떻게 나올지 이런저런 상상을 하며 잔뜩 긴장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그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이 무엇이 그리 좋고 행복한지, 빗속에서 큰 목소리로 함께 찬송가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런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부부와 나눈 대화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원망이나 시비 없이 일처리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저는 성품이 매우 이기적이고 교만했습니다. 매사에 겁이 없었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친정집이 4대가 함께 사는 대갓집이었고 내 위아래로 오빠와 남동생 셋만 있어서 일찍이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면서 그런 성격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나서 다른 사람은 칭찬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일에 무관심하였습니다.

거기에다 저는 몸이 약해서 수시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은 쥐면 깨질까 불면 날아갈까 살뜰하게 나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공부면 공부, 살림이면 살림 그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마음먹고 열심히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대 초반이 되었을 때 병마가 찾아왔습니다. 허리를 크게 다쳐 대수술을 하고 일 년 이상을 누워서 지냈습니다. 침식을 같이하는 도우미 아줌마를 곁에 두고 입으로 살림을 하였습니다. 3년 가까이 병고를 겪고 내 엉덩이를 남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자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세상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병까지 찾아왔습니다. 심하게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낳아서 이 삼남매가 잘 자라고 있고 남편 또한 매사에 빈틈이 없고 성실하여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마음속은 지옥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을 보아도 좋은지 모르겠고 모든 것이 귀찮고 짜증스러웠습니다. 그러자 허리의 병 이상으로 큰 병에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형편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의료보험 제도가 지금처럼 잘 되어있기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평범한 월급쟁이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투병 기간이 길어지자 치료비 걱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치료받는데 돈이 덜 들고 더 효과가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에 문득 교회 버스가 지나가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자 전에 우리 집에서 세를 살던 그 젊은 전도사 부부가 해주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를 전도하면서 해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며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날 교회에 다니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다음 일요일 같은 시간에 길에 나가서 그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고 난생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교회당에 막 도착했을 때 앞선 시간에 예배를 마친 신자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몸이 성치 않은 분들이 밝고 환한 얼굴로 나오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예배가 궁금하고 교회가 궁금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굳게 마음먹고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결신을 하고 예배와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였습니다. 평소에 책을 좋아했으므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작정하여 금식기도를 할 때였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중에 성경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감람나무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힘 되어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먹고 자라 참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는 저 혼자 스스로 참감람나무의 열매가 된 것인 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떠올라 교회에 다닌지 3년 만에 처음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여 기운이 없고 몸이 지쳐 깜박 잠이 들었다가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크게 새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 문 앞에 선 사람이 책을 펼쳐 들고 이름을 적고 있었고 그 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깬 후에 그 책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란 생각이 들어 너무나 감격스럽고 황홀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화초의 분갈이를 하고 흠뻑 물을 주는데 화초의 모든 이파리들이 하늘을 향하여 있고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의 눈도 밝아지면서 세상이 다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히던 우울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미운 짓을 해도 그저 귀엽기만 하고 남편도 전보다 더 이해하고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사에 짜증이 섞였던 말투도 부드럽게 바뀌고 얼굴 표정 또한 밝고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전철에서, 길거리에서 큰소리로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교회에 가자는 말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도 저를 따라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크게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하루는 시어머님이 물으셨습니다. "교회에 다니니까 그렇게 좋으냐?" 저는 "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후 평생 절에 다니며 우상숭배를 하던 시어머님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된 성도가 되셨습니다. 남편도 생활 전반이 변화되어 아이들에게서 "우리 아빠 요즘 천사가 되셨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 비록 몸이 늙고 건강이 예전같지 않지만 지금의 '나의 나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권사로서 교구와 구역을 섬기면서 우리 교회와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힘껏 기도하며 성원하고 있습니다. 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며 주님과 함께 하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무척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한복음 3:36)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미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관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수원 : 수원시팔달구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 (하안동) T. 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 032-507-3731~2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석림동) T. 041-667-3731
울전 : 수원시 장안구 하틀로 55(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누가복음 15장 1절~7절 강해 설교"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 누가복음 15장 1절~7절 강해 설교**
- **찬송 : 찬송가 335장(새찬송 277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본문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아오는 장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멸시받는 자들이 항상 모여들었습니다. 유대 율법학자들과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이러한 모습이 몹시 못마땅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당국은 점령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채용한 세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들이 로마 당국에서 부과한 금액 이상을 징수하여 착복하더라도 묵인해 주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세리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멸시하는 세리와 죄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를 사모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조상들의 관습과 전통이나 율법해석을 기초로 하여 금지사항과 의무조항을 613개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들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다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그 규정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마 23:27).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눅 11:46)라고 책망하심으로 그들의 가식과 위선을 여지없이 드러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방인을 위하여 유대인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세리들과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이 나아오는 것을 예수께서 용납하고 오히려 환영하며 심지어 그들과 음식을 먹는 사실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원망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원망하여'라는 성경원어는 반복과 계속을 의미하는 미완료형으로서 '와글와글 떠들다, 수군거리다, 투덜거리다, 불평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라고 말하는 장면은 그들이 불만스러운 태도로 쉴 새 없이 비난 공격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여 줍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었으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성경말씀을 풀어서 들려주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불만이 차 있는 사람은 교만한 정신으로 인해 마음을 닫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역정을 내시거나, 자신을 변호하려고 논쟁을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비난이 잘못된 것임을 깨우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비유로써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속하여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들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분은 이 세 가지 비유를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아 감격하여 말하기를 "성경이 불타 없어진다고 해도, 누가복음 15장이 남아 있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손상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과도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이 비유들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으로 솟구치는 격정을 억제할 수 없는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말씀하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길 잃은 양에 대하여 목자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목자는 해가 질 무렵에 그의 양 떼를 헤아려 보니 일백 마리 가운데 아흔 아홉 마리만 있고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목자는 지금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아흔 아홉 마리의 양보다 잃은 한 마리 양에 대한 생각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잃은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목자는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잃은 양이 지금 어디에서 헤매고 있을까, 지금 어떤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을까, 낭떠러지에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맹수의 공격을 받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시작했습니다.

짐승들 중에 양은 길을 찾는 능력이 가장 둔합니다. 개는 멀리 어디까지나 돌아다녀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고삐를 놓친 말이 멀리 달아났을지라도 그 주인의 마구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날짐승들은 길을 찾는데 뛰어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새들이 수 천리 수 만리를 정확히 이동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벌이나 개미 같은 곤충도 뛰어난 방향감각을 가지고 일터에서 집으로 길 잃지 않고 잘 왕래합니다. 그런데 목자를 떠난 길 잃은 양은 계속 헤매고 방황합니다. 양은 스스로 먹을 것이 있는 곳을 찾아 내지 못합니다. 낙타는 멀리서도 물의 냄새를 맡습니다. 맹금류는 높은 창공에서도 지상에 기어가는 들쥐나 먹이를 발견해냅니다. 양은 먹을 것을 탐색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길 잃은 양은 헤어나올 수 없는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위험에 노출되고 결국 굶어 죽거나 맹수의 밥이 되고 맙니다. 에스겔서 34장 8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바로 길 잃은 양(羊)입니다. 인생들에 대하여 성경에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사 53:6) 갔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들은 바른 길을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도(道)를 닦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각해 낸 온갖 사상, 철학, 종교들이 그것입니다. 그 중에는 매우 고상한 윤리적 규범과 사회생활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억제하고 자족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인생길의 끝에 직면하게 될 멸망을 면하게 하여 주지는 못합니다. 잠언서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였습니다. 길 잃은 양은 목자가 그를 찾아 구출해 주지 않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목자의 마음은 오직 잃은 양에 대한 근심과 연민의 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둘째, 목자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눅 15:4)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자에게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마음 아파하고 고민하십니까? 아흔 아홉 마리는 그대로 있다는 사실에 비하면 잃은 한 마리는 사소한 것임을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한다면 목자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은 참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 잃은 양은 나의 양입니다. 내 마음에는 잃은 나의 한 마리 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찾기 위해 험한 곳, 어둡고 미끄러운 곳,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 목자여 그곳은 컴컴한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 곳은 험한 비탈과 절벽이 있는 곳입니다." "그 곳은 무서운 맹수들의 거처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든 목자는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그의 일념은 잃은 그의 양을 찾는 데 있습니다. 수고와 고통과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잃은 한 마리 양은 그 목자에게 속한 양이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 그 어떤 수고와 고통과 희생도 아끼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삯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헤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 10:11~15)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을 사울왕에게 허락받기 위해 왕을 설득하려고 자신이 양을 치면서 경험한 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삼상 17:34~36). 다윗의 경험담에는 선한 목자가 양들을 얼마나 아끼는 가를 아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양들을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내기 위하여 죽는 것도 불사하였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잃은 양들인 우리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일들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가운데 한 위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기록되기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골 1:15~17)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하였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양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양들입니다. 예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한 십자가 고난을 목전에 두고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남겨둘 제자들과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열한 제자들이 함께 있었고 이 기도의 내용을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요 17:6,24).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결코 잃은 그 상태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양 가운데 하나도 멸망에 이르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기어코 찾아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옛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탄원하기를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출 32:12) 하였습니다. 이 같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백성을 진멸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같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요 17:12).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수고와 고통과 희생은 결코 헛된 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셋째, 잃은 양을 찾은 목자가 즐거워하며 그 양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지(The Good Earth)'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펄벅 여사는 유난히 한국을 사랑하였습니다. 1960년 가을 한국을 방문하여 경주로 여행하였습니다. 군용 지프를 타고 가면서 황금 들판에서 농부들이 벼 수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동차가 시골 마을로 들어섰을 때 볏가리를 실은 달구지를 소가 끌고 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달구지 옆에는 한 농부가 볏짐을 잔뜩 올린 지게를 지고 소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색다른 광경을 보게 된 펄벅 여사가 차에서 내려 사진기로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길 안내하는 통역에게 "저 농부는 왜 힘들게 볏단을 지고 갑니까? 소달구지에 싣고 가면 편할 텐데."라고 말하니 통역이 대답했습니다. "농부는 하루 종일 함께 일한 자신의 소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펄벅은 시골 여행을 그만 두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나머지 것들은 더 보지 않아도 알겠다. 볏가리 짐을 지고 가는 저 농부의 마음이 바로 한국인의 마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느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서양의 농부라면 누구나 달구지 위에 짐을 모두 싣고 자신도 올라 타 편안하게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농부는 말 못하는 소의 짐을 덜어주려고 자신의 지게에 볏단을 한 짐 지고 소와 함께 귀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온 몸에 전율을 느꼈다는 펄벅 여사의 심성도 곱고 아름답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목자가 잃은 양을 발견하니 반가웠지만 한편 자신이 고생한 일로 인해 밉기도 하여 "이 녀석아, 어찌하여 길을 잃고 헤매어 나로 하여금 이 같이 고생하게 하였느냐?"하면서 지팡이로 두들겨 패는 장면이 나온다 하여도 이상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느라고 흙투성이 땀투성이가 된 목자는 도리어 그 양을 번쩍 들어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목자의 어깨 위에 들어 올려진 저 양을 유심히 보십시오. 자신이 오버랩 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어깨 위에 들어 올려진 양은 구속받은 모든 자이며 곧 나 자신이 틀림없습니다. 이를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 전율을 느끼는 것이 합당합니다. 잃어버린바 된 우리를 찾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번쩍 들어 그 어깨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데서 구출된 것만 하여도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한 일인데 그 위에 존귀를 더하는 은총을 입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요 10:10)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엡 1:3)을 주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할 때 베냐민에 대하여 축복하기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신 33:12) 하였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부활에 참예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게 되니 그 양을 번쩍 들어 어깨 위에 올려놓은 그 장면을 종종 상상해 보십시오.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그 양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께서 "내가 어찌하여 이 같이 큰 복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심정이 되거든 마치 시편 기자처럼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라고 소리 내어 고백하고 찬송하십시오. 이러한 성도의 심령에는 어두움에 속한 정서가 머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넷째, 목자는 그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였습니다.

목자는 이러한 즐거움을 위하여 고생과 위험을 무릅썼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즐거움을 위해 고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신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외면을 당하는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한 낮의 해도 빛을 잃고 어두움이 임한 가운데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사 53:4~6,11)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치르신 고난과 희생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수치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신 이유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하였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멸망 받을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으로 인한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7) 하였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기쁨의 환호가 넘쳐납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천사들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 기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을 통하여 잃은 자를 찾으시고 구원 얻게 하여 주십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크게 둘로 나누자면 예배와 복음전파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예배와 함께 잃은 자가 구원 얻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때마다 새로운 결신자에게 신앙고백 기도를 하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예배 순서 가운데 매우 귀중한 순서입니다. 길 잃은 자들이 주께로 나아오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성도들이 큰 기쁨으로 축하하고 환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일생 동안 여러분의 심령에 쟁쟁하여 신령한 기쁨과 행복감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